

“왜” 질문의 논리적 구조

선 우 환 (서울시립대)

【요약문】 “왜”로 시작하는 질문들의 성격은 워낙 다양해서, 우리는 “왜” 질문들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으리라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 되기가 쉽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그런 우려에 맞서, “왜” 질문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화용론적, 의미론적 성격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논의한다. 필자는 한 의문문의 의미는 그것에 대한 적합한 서술문 대답들의 진리 조건들의 집합이라는 일반적 이론에 입각해서, “왜” 의문문에 대한 적합한 대답들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적합한 대답들이 가진 진리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론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이론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필자는, 어떤 “왜” 의문문이 특정 맥락에서 보다 더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양한 종류의 것들-이유, 원인, 근거 등-을 질문한다고 여겨지는 “왜” 의문문들이 어떻게 이 이론에서 통합적인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가 등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대답을 시도한다.

【주제어】 “왜” 질문, 적합한 대답, 진리 조건

1. 서론

철학자들과 과학자들과 역사가들과 일상인들은 수없이 자주 “왜”로 시작하는 질문들(why-questions)을 한다. 왜 하늘은 파랗게 보이는가? 왜 1920년대 말에 대공황이 발생했는가? 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왜 낙타는 그렇게 긴 속눈썹을 가지고 있는가? 왜 그 연쇄 살인범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가?

이런 질문들을 묻고 그것들에 대답하는 것은 우리의 지적 활동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지적 활동을 영위하는 중에 잠시 그런 활동 자체의 성격을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유익해 보인다. 우리는 그런 종류의 질문들이 가진 근본적 성격을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할 것인가? 그런 질문들은 모든 경우에 적절히 제기될 수 있고 또 그 질문들에 대한 올바른 대답들은 항상 존재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질문들은 어떤 경우에 적절히 제기될 수 있고 또 그에 대한 올바른 대답들을 가지는가? 그런 질문들에 대해 어떤

24 논리연구 6집 2호

의미론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질문들에 대해 무엇이 올바른 대답들인지를 결정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필자는 여기서 이상과 같은 물음들에 대답하려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왜”로 시작하는 질문들의 성격들이 워낙 다양해서, “왜” 질문들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으리라는 것에 대해 회의적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질문들 중 어떤 것은 한 사건의 원인에 대해 묻고 있고 어떤 것은 한 행위자가 한 행위를 한 의도에 대해 묻고 있으며 어떤 것은 한 믿음이나 태도나 행위가 어떻게 정당화되는지 묻고 있다. 그런 질문들이 모두 “왜”로 시작된다는 걸보기의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실질적으로는 서로 다른 종류의 질문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¹⁾ 필자는 그런 회의적 견해에 맞서, “왜” 질문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화용론적, 의미론적 성격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그것들이 무엇인지 논의할 것이다.

“왜” 질문(혹은 “왜” 의문문)²⁾을 주제적으로 다룬 기존의 철학적 논의는 (그 주제의 중요성에 비해) 그다지 많지 않은데, 그 중 언급할 만한 것은 브롬버거(S. Bromberger)와 반 프라센(B. Van Fraassen)의 작업들 정도이다.³⁾ 필자는 여기에서 이들의 작업들을 따로 일일이 논의하지 않고 곧바로 필자 자신의 논의에 접어들겠다. 그 대신, 논의하는 중에 필자의 생각의 어떤 부분들이 이들의 생각들과 언급할 만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질 경우에 그 측면들과 관련해서 약간의 논의들을 (주로 각주에서) 덧붙이겠다. 또한 필자가 여기에서 하는 작업의 어떤 부분(4절)은, 필자가 다른 곳에서 주창한 설명 이론을 확장/수정하고 발전시키는 이론이라고 볼 수도 있다.⁴⁾ 그 곳에서는 필자가 “P이기 때문에 Q이다” 형식의 문장을 특별히 “왜”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다루지 않았다. 필자는 여기에서 그런 측면에서의 고려를 포용하기 위해 필자의 이론이 어떻게 확장/수정되

1) 예를 들어 Van Fraassen (1980)이 그런 견해를 받아들인다.

2) 많은 경우에 “질문”과 “의문문”은 구분될 필요가 없다. 그 둘이 구분될 경우, 필자는 “의문문”을 특정한 유형의 구체적인 언어적 대상들-특정한 모양의 한국어나 영어의 연필 자국들 등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하고 “질문”은 그런 의문문을 사용해 이루어지는 특정한 언어 행위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다. 그 둘 사이의 구분은 “서술문”과 “진술” 사이의 구분과 유사하다.

3) Bromberger (1966), (1987), (1992); Van Fraassen (1980) 참조.

4) 선우환 (2001) 참조.

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또한 다룰 것이다.

2. 의문문의 의미론의 일반적 형식

“왜” 질문(혹은 “왜” 의문문)의 의미론을 제시하기 전에 의문문 일반이 어떤 형식의 의미론을 가질 수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여기에서 일단 오늘날 언어철학자들 사이에 널리 받아들여지는 형태의 하나의 의미론적 접근법을 준거점으로 놓고 시작하겠다. 그것은 진리 조건적 의미론, 특히 그 중에서도 가능 세계 의미론이다. 이 의미론적 접근은 서술문과 그것을 이루는 언어적 표현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다: 즉 한 서술문의 의미는 그것이 어떤 가능한 상황들-가능 세계들-에서 참이고 어떤 가능한 상황들에서 거짓인가 하는 진리 조건과 동일시될 수 있다. (그리고 문장을 이루는 표현들의 의미는 그 표현들이 전체 문장의 진리 조건에 기여하는 바와 동일시된다.) 이런 의미론적 접근을 의문문들에 대해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변형해야 할 것인가? 의문문은 참도 거짓도 아니므로 명백히 그것의 의미는 그것의 진리 조건과 동일시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의문문을 다루기 위해 진리 조건적 접근을 그다지 어렵지 않은 방식으로 변형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수도는 어디인가?”라는 의문문에 대해, 독일의 수도가 베를린인 가능 세계에서는 “베를린이다”가 참인 대답이고 독일의 수도가 하이델베르크인 가능 세계에서는 “하이델베르크이다”가 참인 대답이다. 따라서 우리는 의문문의 의미를 각 가능 세계에서 어떤 대답이 그에 대한 참인 대답인지의 조건과 동일시하는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독일의 수도는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누군가가 “하이델베르크는 오래된 도시이다”라고 말하거나 “ $2+3=5$ ”라고 말했다면 그는 참인 문장을 발화함으로써 그 질문에 대답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그가 무언가 참인 대답을 하기는 했지만 그 질문에 적합하지(appropriate) 않은 대답을 했다는 점이다. 각 질문에 대해 어떤 대답들이 적합한가 하는 것은 그 질문을 표현하는 의문문

의 의미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의문문에 의해 제기된 질문에 대해, 참이지만 적합하지 않은 대답만을 하는 사람은 (그의 진지성이 의심되지 않을 경우) 그 의문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 의문문에 대한 적합한 대답들의 집합은 그 의문문의 의미의 한 구성 성분으로 여겨져야 한다. 이를 포용하기 위해 한 의문문의 의미를, 그 의문문에 대한 적합한 대답들의 집합과 각 가능 세계에서 그 집합 속의 어떤 대답들이 참인가 하는 조건의 순서쌍으로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혹은 더 단순화해서, 한 의문문의 의미를 각 가능 세계에서 어떤 대답이 그에 대한 참이면서 적합한 대답인지의 조건과 동일시할 수도 있다.⁵⁾

한 질문에 대한 축약된 대답과 축약되지 않은 대답을 구분할 경우, 우리는 이론적으로 보다 더 만족스러운 의미론적 접근을 취할 수 있다. 위에서의 “베를린이다”와 같은 대답은 완전한 서술문 형태를 갖추지 않은 축약된 대답이다.⁶⁾ 그것이 어떤 서술문의 축약인가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의문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주어졌는가에 의존한다. 그것이 “독일의 수도는 어디인가?”라는 의문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주어졌다면 그것은 “독일의 수도는 베를린이다”라는 완결된 서술문의 축약이다. 그리고 “예”와 같은 대답이 “철수가 집에 돌아왔는가?”라는 의문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주어졌다면 그것은 “철수가 집에 돌아왔다”라는 서술문의 축약이다. 축약된 대답들은 각 가능 세계에서 그것들이 어떤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인가에 상대적으로만 참, 거짓을 갖지만, 축약되지 않은 완결된 서술문 대답들은 그것들이 어떤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인가에 상관없이 각 가능 세계에서 참, 거짓을 가진다.

그러면 한 의문문의 의미는, 어떠한 어떠한 진리 조건을 갖는 (축약되지 않은) 서술문들을 적합한 대답들로서 갖는가의 조건과 동일시될 수 있다. 즉 한 의문문의 의미는 그것에 대한 적합한 (축약되지 않은) 서술문 대답들의 진리 조건들의 집합이다.⁷⁾ 이런 접근이 갖는 이론적 장점은, 의문문의 의미

5) 의문문의 의미에 대해 이와 같이 그것에 대한 가능한 대답들이 무엇인지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의문문에 대한 언어철학적 논의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아이디어이다. 예를 들어, Belnap & Steel (1976) 참조.

6) 여기서의 “축약된 대답”은 Belnap & Steel (1976) pp. 14-15의 “부호(code)” 혹은 “부호화된 대답(coded answer)”에 상응한다.

7) 즉 한 의문문의 의미는 그것에 대한 적합한 (축약되지 않은) 서술문 대답들의 집합을 그 원소들의 진리 조건들에 의해 명시함으로써 명시될 수 있다. 앞으로 필자는 ‘대답’이란

가 특정 언어에 상대적인 방식으로만 개별화될 수 있게 될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백조는 무슨 색인가?”와 “What is the color of swans?”는 명백히 동일한 의미를 가진 (서로 번역될 수 있는) 두 의문문임에도 불구하고, 그 두 의문문이 각각 적합한 한국어 대답들과 적합한 영어 대답들이 무엇인가에 의해 그 의미가 명시됨으로써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의문문들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러나 두 의문문은 동일한 진리 조건을 갖는 서술문들을 적합한 대답들로서 가지기 때문에, 현재의 접근에 입각해 동일한 의미를 가진 의문문들로서 다루어질 수 있게 된다.

의문문에 대해 의미론을 제시하는 이런 일반적 전략의 관점에서 볼 때, 의문문의 의미는 다음의 두 가지를 명시함으로써 명시될 수 있다. 첫째, 그 의문문에 대한 적합한 서술문 대답들은 어떤 문장들인가? 둘째, 그 문장들의 진리 조건은 무엇인가? (각 단계의 관계는 특정 언어에 상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두 과제를 결합하면 특정 언어로부터 독립적인 방식으로 의미가 명시될 수 있다.)

한 의문문에 대한 적합한 대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더 필요하다.⁸⁾ 질문을 정보에 대한 요구(request for information)라고 보았을 때, 한 의문문에 대한 적합한 대답은 그 의문문에 의해 제기된 질문이 요구하는 바로 그 정보를 제공하는 대답이다. 여기서 ‘정보’라는 말을 필자는 ‘참인 정보’라는 것을 함축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물론 정상적인 경우에 어떤 질문도 거짓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질문이 요구하는 정보’는 참인 정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위의 진술이 이렇게 이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적합한 대답”을 규정할 수도 있다: 한 의문문에 대한 적합한 대답이란, 그 대답이 참이었더라면 그 의문문에 의해 제기된 질문이 요구하는 바로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을 대답이다. 따라서 필자가 사용하는 용어법에 의하면, “독일의 수도는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독일의 수도는 베를린이다”는 참인 대답이고 “독일의 수도는 하이델베르크이다”는 거짓인 대답이지만, 둘 다 그 질문에 대해 적합한 대답이다.

말로 축약되지 않은 서술문 대답들만을 가리키겠다.

8) “적합한 대답”의 개념은 Belnap & Steel (1976)의 “직접적 대답(direct answer)”의 개념과 유사하다. 이에 대한 이후의 설명은 Belnap & Steel (1976)로부터 독립적이다.

누군가가 정보를 요구할 때 그 정보의 요구는 그 요구가 충족되기 위해 어떤 사태를 전제(presuppose)할 수 있다. 다른 종류의 요구, 예를 들어 “그 방 창문을 닫아 주세요”라는 요구가 그 방에 창문이 있다는 것과 그 창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전제하듯이, 정보의 요구 역시 특정한 사태를 전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프랑스 왕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오늘날 프랑스에 왕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 예에서 보듯이 그 전제된 바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그 정보의 요구는, (우리의 지적 한계 때문이 아니라) 요구된 정보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충족될 수 없다. “현재 프랑스 왕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참이면서 적합한 대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참이면서 부적합한 대답이나 거짓이면서 적합한 대답은 존재하지만.) 이 경우에 질문자의 전제가 거짓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반응은 “오늘날 프랑스에 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용어법에 있어, 그는 그 질문에 대해 적합한 대답을 한 것은 아니다. 그는 질문자가 요구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답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대신 그런 정보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적합한 대답이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려 준 것이다. 이상의 사실을 이용하면, 우리는 한 질문이 어떤 사태를 “전제(presuppose)”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적합한 대답의 개념을 통해 정의할 수도 있다. 즉 한 질문이 P라는 사태를 전제한다는 것은, P라는 사태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 그 질문에 대한 참이면서 적합한 대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⁹⁾

9) 여기의 “그 질문에 대한 참이면서 적합한 대답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된 조건에서 ‘참이다’라는 부분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앞서의 “현재 프랑스 왕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거짓이면서 적합한 대답은 존재한다. 예를 들어 “현재 프랑스 왕은 미테랑이다”라는 대답은 비록 거짓이지만, 만약 참이었다면 질문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대답이었을 것이다. 익명의 심사자가 제기한 한 반론은 이 점을 강조함으로써 대답될 수 있다. 그는 “[글쓴이]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의문문의 의미를 파악한다는 말은 그 의문문에 대한 적합한 대답의 진리조건을 파악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한편 글쓴이는 어떤 의문문의 경우 적합한 대답이 원리상 (다른 어떤 사태를 전제하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는 의문문의 의미를 그 의문문에 대한 적합한 서술문 대답들의 진리조건과 동일시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론을 제기한다. 그러나 다른 어떤 (거짓인) 사태를 제기하는 의문문의 경우에도, 필자의 이론에 의하면 위에서 보듯 그 의문문에 대한 (참은 아니지만) 적합한 서술문 대답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의문문의 의미는 그 적합한 대답들의 진리 조건과 동일시될 수 있다.

한 의문문에 대해 적합한 대답들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데에는 의미론적 요소도 작용하지만 화용론적 요소 역시 작용하거나 작용할 수 있다. 그것은 주로 한 의문문을 어떤 정보를 요구하도록 사용하는가가, 그 의문문을 사용하는 맥락(context)에 의존할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제부터 이 논문의 주 관심 대상인 “왜” 의문문에 대해 우선 그에 대한 적합한 대답들이 어떤 대답들인지 논의하도록 하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대답들의 진리 조건이 무엇인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3. “왜” 질문에 대한 적합한 대답들과 “왜” 질문이 제기 되는 맥락들

3-1. “왜” 질문에 대한 적합한 대답이 되기 위한 기본 조건

“왜” 의문문들은 일반적으로 “왜 Q인가?”(“Why is it the case that Q?”) 꼴의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여기서 ‘Q’는 서술문에 의해 채워질 수 있는 자리를 표시한다. 앞으로 질문 “왜 Q인가?”에서 ‘Q’ 자리에 채워지는 문장을 그 “왜” 질문의 “안긴 문장”이라고 부르겠다.

이 꼴의 의문문에 대해 적합한 대답이기 위한 핵심적인 필요 조건은, 그 의문문이 사용되는 맥락에 의존하지 않고 (화용론적 고려 없이) 진술될 수 있다. 위의 꼴의 의문문에 대한 적합한 대답은 “P이기 때문에 Q이다” 꼴의 문장(혹은 그것과 분석적으로 동치인 문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¹⁰⁾ (여기

(물론 “이 세상에서 가장 푸르른 맛은 무엇인가?”와 같은 아예 의미 없는 의문문에 대해서는 적합한 대답들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의문문의 의미를 어차피 파악할 수 없을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를 낳지 않을 것이다. 방금 예로 든 의문문에 대해 적합한 대답들과 그것들이 참인 경우를 상상함으로써 그 질문이 꺾보기와 달리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필자의 이른-의문문의 의미와 그 의문문에 대한 적합한 대답들의 진리 조건 사이의 긴밀한 연계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할 기회를 준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한다.

10) 혹은 대답으로서 (질문 의존적으로) 축약된 대답까지 포함시킨다면, 앞서의 질문이 주어던 한에서의 “P이기 때문에 Q이다”라는 문장의 축약된 대답인 “P이기 때문이다”도

서 'P'와 'Q'는 모두 서술문에 의해 채워질 수 있는 자리를 표시하지만 'Q'는 앞의 의문문의 안긴 문장과 동일한 서술문에 의해 채워져야 한다.)

이런 조건을 통해 우리는 일단 “왜 Q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의미론적으로 부적합한 대답들을 배제할 수 있다. “왜 하늘은 파랗게 보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파란 하늘 색깔은 참 아름답다”나 “미국 정부가 경제에 잘못 개입했기 때문에 1920년대 말에 대공황이 발생했다”같은 문장들은 일단 부적합한 대답들로서 배제된다.

“왜 Q인가?” 꼴의 질문에 대한 모든 적합한 대답이 “P이기 때문에 Q이다” 꼴의 문장(혹은 그것과 분석적으로 동치인 문장)이고, 후자의 문장들은 모두 Q를 함축하므로,¹¹⁾ Q가 참이 아닐 경우에 “왜 Q인가?” 꼴의 질문에 대한 참이면서 적합한 대답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왜 Q인가?” 꼴의 질문은 Q가 참임을 전제(presuppose)한다. 그리고 이는 우리 직관에 잘 들어맞는다.

위와 같이 진술된 조건은 일단 특정한 언어에 상대적인 방식으로 주어졌다. 즉 그 조건은 한국어 단어 ‘때문에’를 포함하는 문장 꼴 “P이기 때문에 Q이다”에 대한 언급을 통해 진술되었다. (또한 영어 의문문 “Why is it the case that Q?”에 대한 적합한 대답이기 위한 유사한 조건은 영어 단어 ‘because’를 포함하는 문장 꼴에 대한 언급을 통해 진술될 것이다.) 그러나 뒤에 “P이기 때문에 Q이다”의 진리 조건이 주어지면 (이 진리 조건을 ‘C(P, Q)’라고 부르자), 우리는 “왜 Q인가?”의 의문문에 대한 적합한 대답은 진리 조건 C(P, Q)를 갖는 (동일 언어의) 문장이어야 한다고 단순히 진술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조건(비록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기는 하지만)을 만족하는 모든 대답이 특정한 맥락에서 사용된 의문문에 의해 제기된 질문에 대한 적합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이런 화용론적 측면에서의 적합성 기준을 파악하기 위해 “왜” 질문에 대한 화용론적 탐구를 시작하도록 하자.

대답으로서 허용된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축약되지 않은 대답만을 대답으로서 고려하고 있다.

11) 뒤에서 살펴 볼 “P이기 때문에 Q이다”의 진리 조건을 참조하시오.

3-2.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왜” 질문들

보통의 맥락에서 어떤 “왜” 질문들은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데 반해 어떤 “왜” 질문들은 그렇지 못하다. 다음과 같은 “왜” 질문들을 살펴 보자.

- (1) 겨울은 왜 추운가?
- (2) 올해 겨울은 왜 그렇게 (다른 겨울들보다도 특별히 더) 추웠는가?
- (3) 사람은 왜 밥을 먹는가?
- (4) 영희는 오늘 아침에 왜 밥을 안 먹는가?

위의 질문들이 비교적 자연스러운 것과 달리 다음 “왜” 질문들은 그다지 자연스럽지 않아 보인다.

- (5) 올해 겨울은 왜 (정상시처럼) 추웠는가?
- (6) 영희는 오늘 아침에 왜 밥을 먹는가?

(5)와 (6)이 각각 (2)와 (4)보다 덜 자연스러운 까닭은 일반적으로 춥고, 사람은 일반적으로 매일 아침에 밥을 먹기 때문이다. 즉 “왜” 질문이 질문다운 질문으로 성립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는 어느 상황이 더 정상적(normal)인가에 관계된다고 여겨진다.¹²⁾ (2)와 (4)는 예외적인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 올해 겨울은 다른 겨울보다 더 추웠다. 영희는 아침에 보통 밥을 먹는데 오늘 아침에는 밥을 안 먹는다. 이 질문들이 묻고 있는 것은, 무엇이 올해 겨울과 다른 겨울들을 차이 나게 하느냐는 것, 그리고 무엇이 오늘 아침과 평소 아침을 영희가 밥 먹는 데 있어서 차이 나게 하느냐는 것이다. 올해 겨울에도 평소 정도로 추운 가능한 상황이나 영희가 오늘 아침에도 밥을 먹는 가능한 상황은 쉽게 상상되거나 기대될 수 있고 우리는 이런

12) 이와 유사한 고려를 Bromberger (1966/1992) 역시 하고 있다. 그의 경우 이런 고려는, 주로 Hempel의 법칙 연역적 설명 모형을 수정하는 형태의 이론을 “왜” 질문에 대한 이론으로서 받아들이게 한다. 즉 그는 “비정상 법칙(abnormic law)”의 개념을 도입하고 그런 법칙에 의해 연역되는 것이 “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룬다는 내용의 이론을 주장한다.

상황들을 현실적 상황과 비교한다고 할 수 있다.

(5)와 (6)이 이처럼 자연스러운 질문으로 여겨지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으로라도 비교되는 상황이 정상적인 것으로 될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영희가 평소 아침에 밥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어젯밤의 배탈 때문에 오늘 아침에는 밥을 먹지 않았다고 결정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자. 그 경우의 정상적인 상황-우리가 더 쉽게 상상하고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영희가 오늘 아침에 밥을 먹지 않는 것일 것이다. 그런데도 영희가 오늘 아침에 밥을 먹는 것이 목격될 경우에, 그녀가 밥을 먹는 현실적 상황은 정상적인 것으로 기대되는 가능한 상황-그녀가 밥을 먹지 않는 상황-과 자연스럽게 비교되고, (6)의 질문은 더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겨울이 일반적으로 춥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을 때에, 이번 겨울이 왜 추웠느냐는 물음(왜 특별히 더 추웠느냐는 물음이 아닌)은 다소 이상한 질문이다.¹³⁾ 물론 이 때 (1)과 같이 겨울이 왜 추우냐는 물음은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 있다. 겨울이 왜 추우냐는 물음은 다른 계절들이 겨울보다는 덜 춥다는 것(그것이 정상적인 상황으로 고려되어)과 비교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 있다. 이 때 겨울에 대해 그것이 춥다는 현실적 상황과 (다른 계절들에 비추어 쉽게 상상되고 기대되는) 겨울이 춥지 않을 가능한 상황이 비교된다. 즉 이 두 상황 사이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인가가 질문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로부터의 최소한의 교훈은 다음과 같다. “왜” 질문은 하나의 현실적 상황에 대해 그것과 비교되는 다른 가능한 상황을 상정한다. 즉 “왜 Q인가?”라는 질문은 Q가 성립하는 현실 상황을 다른 가능한 상황과 비교한다. “왜 Q인가?”라는 질문은 Q가 성립하는 상황과 비교되는 가능한 상황을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정도만큼 그 정도로 자연스럽게.

그 질문이 한 현실적 상황을 어떤 가능한 상황과 비교하고 있는가가 가장 분명한 경우는, 그 비교되는 가능한 상황이 그 질문이 제기되는 맥락에서 뚜렷하게 상상되고 주목되는 경우이다. 이것이 바로 보통의 통상적인 맥락에서

13) 이 물음에 대해 우리는 “겨울은 원래 추워”라고 반응할 수도 있다. 이 때 이 반응은 위의 물음에 대한 (적합한) 대답이라기보다는 그 물음이 제대로 제기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2)나 (4)같은 질문들이 (5)나 (6)보다 더 자연스럽게 들리는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정상적인 것으로부터 이탈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떤 상황과 비교해야 하는지-즉 바로 정상적인 상황과 비교해야 한다는 것-가 가장 분명하다. 물론 어떤 상황이 뚜렷하게 상상되고 주목되는가 하는 것은 질문이 제기되는 각각의 맥락에 의존하는 것이며, 따라서 어떤 다른 특수한 맥락들에서는 (5)나 (6)을 통해서도 자연스러운 질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3-3. “왜” 질문과 비교되는 상황들

Q인 현실적 상황이 어떤 가능한 상황과 비교되고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는 한, “왜 Q인가?”라는 의문문이 어떤 식으로 이해되어야 하는지(어떤 질문이 제기되고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다음의 “왜” 의문문을 살펴보자.

(7) 왜 철수가 사무실에 갔는가?

이 의문문은 철수가 사무실에 간 상황을 철수가 사무실에 가지 않은 상황 일반과 비교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을 철수 아닌 사람이 사무실에 간 상황이나 철수가 사무실 아닌 다른 곳에 간 상황과 비교하는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7)은

(8) 왜 철수가 사무실에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갔는가?

(9) 왜 철수 아닌 사람이 사무실에 가지 않고 철수가 사무실에 갔는가?

(10) 왜 철수가 사무실 아닌 곳에 가지 않고 사무실에 갔는가?

등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 세 질문은 서로 다른 질문들이다.¹⁴⁾ 이들 질

14) 이런 관찰이 처음 제기된 것은 B. Hansson의 미발표 초고에서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Van Fraassen (1980) 5장 역시 그에게서 빌려 온 이 관찰을 보고하면서 그 포인트를 받아들인다. 필자의 이 논문에서와 달리, Van Fraassen은 이런 비교/대조항의 차이

문들에 대한 적합한 대답들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다음 대답들이 각각 (8)-(10)의 세 질문에 대한 적합한 대답의 후보들이다.

- (11) 철수는 용무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실에 갔다.
- (12) 철수가 다른 사람보다 더 그 용무에 밝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닌 그가 사무실에 갔다.
- (13) 철수는 다른 곳에서의 용무보다 사무실에서의 용무에 더 급했기 때문에 사무실에 갔다.

(7)과 같은 의문문이 (8)-(10) 중 어느 질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지는 맥락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한 맥락으로부터 벗어나서 (7)과 같은 의문문이 정확히 어떤 정보를 요구하는가는 분명하지 않다.

결국 “왜” 질문은 “왜 R이 아니고 P인가?”의 형식으로 비교되는 상황이 무엇인지 명시할 때에야 분명해진다. 통상적인 방식으로 이해되었을 때에, (1)은 “왜 겨울은 다른 계절들처럼 덥거나 따스하지 않고 추운가?”라고, (2)는 “왜 올해 겨울은 보통의 겨울 정도로 춥지 않고 그렇게 다른 겨울들보다도 특별히 더 추웠는가?”라고, (3)은 “왜 사람은 밥을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먹는가?”라고, (4)는 “왜 영희는 오늘 아침에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안 먹는가?”라고 명시될 수 있다.

여러 예들에서 보듯이 “왜” 질문의 전형적인 경우에 있어서, “왜” 의문문의 안긴 문장이 참인 상황이 그 안긴 문장이 거짓인 상황 일반과 비교된다. 즉 많은 “왜” 질문은 “왜 ~P가 아니고 P인가?”의 형식의 문장에 의해 표현된다. (‘R’자리에 ‘~P’를 대입한 형태이다.) 그러나 또 적지 않은 “왜” 질문에서 비교되는 상황은 ((7)에서와 같이) 특정한 맥락에 의존해 보다 구체적인

가 가져오는 화용론적 효과에 고무되어서, ‘때문에’의 관계 자체가 화용론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는 입장을 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는 “왜” 질문에 대한 대답의 통합적인 진리 조건을 제시하기를 포기한다. 그는 단지 그 대답의 확률적 평가 기준에 대해서만 제안하는 데, 그가 인정하듯 그 기준은 “왜” 질문에 대한 대답의 진리 조건이 될 수는 없다. 그런 확률적 기준이 “왜” 질문에 대한 대답의 진리 조건이 될 수 없다는 보다 일반적인 논변을 위해서는 선우환 (2001)을 참조.

방식으로 정해진다.

3-4. “왜” 질문에 대한 적합한 대답이 되기 위한 화용론적 조건들

지금까지의 고려를 통해, 우리는 “왜 Q인가?”라는 의문문에 대한 적합한 대답이 무엇인지는, 그 의문문에 의해 제기된 질문이 Q인 상황과 어떤 상황을 비교하는가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은 그 질문이 제시되는 맥락에 의해 결정되는 조건이다. 따라서 이것과 관련된 적합한 대답의 조건을 우리는 화용론적 조건으로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고려되는 화용론적 요소는 주로 “왜 Q인가?”라는 의문문이 어떤 질문을 제기하도록 사용되는가에 있어서의 화용론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즉 그 의문문이 “왜 R1이 아니고 Q인가?”라고 명시되어야 할 질문을 제기하도록 사용되는가 혹은 “왜 R2가 아니고 Q인가?”라고 명시되어야 할 질문을 제기하도록 사용되는가 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맥락적 요소이다. 그러나 일단 그 질문이 “왜 R이 아니고 Q인가?”라는 형식에 의해 더 명시되고 나면, 그 형식에 의해 명시된 질문에 대해 적합한 대답이 무엇인가는 또 다시 맥락에 의존하지 않고 대답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왜 R이 아니고 Q인가?”라는 형식의 질문에 대한 적합한 대답은 “P이기 때문에, R이기보다는 Q이다” 꼴의 문장(혹은 그것과 분석적으로 동치인 문장)이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 조건이다. (물론 이렇게 변화된 꼴의 대답 문장에 대해서는 그 진리 조건에 대한 보다 섬세한 이론이 요구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P이기 때문에 Q이다” 꼴의 문장은 “P이기 때문에, R이기보다는 Q이다”라는 보다 완결된 형태의 대답으로부터의 (맥락 의존적) 축약으로 간주될 수 있다.

“왜” 질문에 대한 적합한 대답의 조건으로서 지금까지 우리가 고려하지 않은 또 다른 화용론적 조건이 있다. 그것은 질문이 제기되는 맥락 중에서도 특히 질문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에 따라 그가 요구하는 정보가 정확히 무엇인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에 관계한다. 같은 의문문이라도 질문자가

36 논리연구 6집 2호

어떤 정보를 결여하고 있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정보를 요구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독일의 수도는 어디인가?”라는 의문문을 통한 질문에 대해 “독일의 수도는 독일의 행정부가 위치한 곳이다”라는 대답이 어떤 맥락에서는 적합한 대답일 수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맥락(질문자가 그런 대답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에서는 그것은 질문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며 따라서 적합한 대답이 아니다.

“왜” 질문의 경우에, 그 질문에 대한 의미론적으로 적합한 대답들이 더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질문자의 배경 지식과 관련된 이런 화용론적 고려가 특별히 더 중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왜 그 사과가 (그 상태로 있지 않고) 떨어졌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어떤 맥락에서는 “진호가 그 사과를 놓았기 때문이다”라는 대답이 적합하고 다른 맥락에서는 “중력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라는 대답이 적합할 수 있다. 질문자가 피질문자와 함께 진호가 사과를 놓는 것을 보면서 그 질문을 제기할 경우 질문자는 후자의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많다. 중력 법칙이 일반적으로 물체 낙하의 이유라는 정보가 공유되는 맥락에서 동일한 의문문이 사용되었을 경우에 질문자는 전자의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많다.

이런 의미에서의 대답의 적합성은 맥락에 매우 민감하고 분명하게 이론화되기도 매우 힘들다. 이런 화용론적 요소는 물론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왜” 질문의 의미론적 연구에 꼭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비교되는 상황과 관련해 나타나는 화용론적 적합성의 문제는 “왜” 질문의 논리적 형식을 위어서와 같이 (“왜 R이 아니고 Q인가?”의 형식으로) 명시화함으로써 그 명시화된 “왜” 질문에 대한 의미론적 적합성의 문제로 다루고, 나머지의 화용론적 적합성은 의미론적 “적합성”의 개념으로부터 제거하는 것이다. 즉 “P이기 때문에, R이기보다는 Q이다”라는 형식의 대답을 “왜 R이 아니고 Q인가?”에 대해 모두 의미론적으로 적합한 대답으로서 다루고, “왜” 의문문의 의미는 그런 의미론적으로 적합한 서술문 대답들의 진리 조건들의 집합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그러면 위의 단락에서와 같이 질문자의 배경 지식의 상태로 해서 부적합하게 되는 대답들은 화용론적으로는 부적합한 대답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왜” 질문의 의미론에서는 그것을 더 이상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다.15)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왜” 질문에 대한 의미론적으로 적합한 대답들에 대해 그 진리 조건을 규명하는 일만이 남아 있다.

4. “왜” 질문에 대한 적합한 대답들의 진리 조건

“왜” 의문문의 의미론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왜” 의문문에 대한 적합한 대답들이 어떤 대답들인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대답들이 가진 진리 조건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왜” 질문들이 어떤 내용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인지를 밝히는 일이기도 하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논의로부터 명백하듯이 “왜” 질문은 두 상황의 비교를 전제한다. “왜” 질문은 앞서 보았듯 현실적 상황과 어떤 상황이 비교되는지 명시되었을 때 “왜 R이 아니고 Q인가?”의 형식으로 나타내어질 수 있다. 이 형식의 질문을 통해 우리는 Q인 현실적 상황과 R이었을 가능 상황이 비교된다. 그리고 그 질문은 두 상황 중에서 R인 상황이 아닌 Q인 상황을 현실적으로 얻어지게 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위 질문에 대한 적합한 대답으로서

(A) P이기 때문에, R이기보다는 Q이다.

라는 대답이 주어질 경우, 이 대답은 그런 정보를 담은 것으로서의 내용(즉 진리 조건)으로 생각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A)가 한 가능 세계 w 에서 참일 조건은 무엇인가? 우선 명백한 필요 조건은, w 에서 P와 Q는 참이고 R은 거짓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

15) 여기서 한 가지 오해의 우려 때문에 지적해야 할 것은, 필자가 여기서 화용론적 적합성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의미론적 적합성만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만 “왜” 의문문의 의미론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종류의 적합성은 의미론적 적합성이고 그것에 대해 4절에서 다루겠다는 것이다. 물론 “왜” 의문문에 대한 의미론적 탐구는 그것에 대한 화용론적 탐구에 의해 보완되어야 하고, 그런 화용론적 문제들을 다룬 것이 이 논문의 3-2절에서 3-4절까지의 부분이다. 이런 오해의 가능성에 대해 해명할 필요성을 일깨워 준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한다.

겨울은 다른 계절들처럼 덥거나 따스하지 않고 추운가?”라는 질문에 대해 “겨울에는 다른 계절보다 일광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른 계절처럼 덥거나 따스하지 않고 춥다”(“P이기 때문에, R이기보다는 Q이다”)라고 대답할 경우가 대답이 참이기 위해서는 우선 겨울이 실제로 다른 계절보다 일광 시간이 짧고(P가 참이고) 겨울이 다른 계절처럼 덥거나 따스하지 않고(R이 거짓이고) 겨울이 추워야(Q가 참이어야) 한다.

물론 이들 조건만으로는 (A)의 참에 충분하지 않고 더욱 중요한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 그것은 P가 w에서 참이라는 것이 Q가 참인 w와 R이 참인 다른 가능 세계 간의 차이에 책임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건을 어떻게 정식화할 것인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 (i) P가 참인 가능 세계에서는 Q가 참이고,
- (ii) P가 거짓인 가능 세계에서는 R이 참이다.

라는 것이다. 그럴 경우 P가 참임이 w에서의 Q의 참과 다른 가능 세계에서의 R의 참의 차이에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P가 참인 모든 가능 세계에서 Q가 참이고, P가 거짓인 모든 가능 세계에서 R이 참이라는 것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명시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예를 들어 겨울의 일광 시간이 길면서도 겨울에는 그 만큼을 보상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태양이 지구로부터 멀리 거리를 두는 그런 가능 세계를 생각해 보자. 그런 가능 세계도 겨울의 일광 시간이 짧지 않은(P가 거짓인) 가능 세계들 중의 하나이며 그런 가능 세계에서는 겨울은 덥거나 따스하지 않을(R이 거짓일) 것이다. 그런 세계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실 세계에서 “겨울에는 다른 계절보다 일광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른 계절처럼 덥거나 따스하지 않고 춥다”가 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세계는 유사성에 있어 현실 세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세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P이기 때문에, R이기보다는 Q이다”라는 문장이 w라는 세계에서 참인지를 판정하기 위해, P가 참인지 여부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w에서 성립하는 다른 사실들을 고정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 조건으로서 필요한 것은

- (i') P가 참이면서 w와 가능한 한 가장 유사한 가능 세계에서 Q가 참이고,
- (ii') P가 거짓이면서 w와 가능한 한 가장 유사한 가능 세계에서 R이 참이다.

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경우 (i')은 더 기본적인 조건들에 의해 충족된다는 것에 주의하자. w에서 P가 참이므로, P가 참이면서 w와 가능한 한 가장 유사한 가능 세계는 w 자신이고, w에서 Q가 참이므로, 이 조건은 w에서 P와 Q가 참이라는 조건에 의해 이미 만족된다.

따라서 핵심적인 조건은 (ii')인데, 이 조건은 P가 거짓이면서 w와 가능한 한 가장 유사한 가능 세계가 존재한다는 가정을 포함한다. 그러나 루이스(D. Lewis)가 반사실 조건문(counterfactuals)에 대한 자신의 논의에서 지적하듯이 이런 가정은 일반적으로 타당하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¹⁶⁾ 예를 들어 P가 “다혜의 키가 170cm이다”라고 해 보자. 그리고 w에서 P가 참이라고 해 보자. 그러면 P가 거짓이면서 w와 가능한 한 가장 유사한 가능 세계(들)는 그녀의 키가 171cm인 세계(와 169cm인 세계)인가? 그러나 그녀의 키가 170.5cm인 세계(와 169.5cm인 세계)는 w와 보다 유사하다. 그리고 170.05cm인 세계(와 169.95cm인 세계)는 그보다 더 유사하고 등등. 이와 같이, 유사성의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으면서 무한히 더욱 더 유사성의 정도가 커지는 유사성 계열만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가정을 포함하지 않도록 (ii')를 수정하고 (i')을 대치하는 조건을 부가하면 우리는 (A)에 대한 다음 진리 조건을 얻게 된다.

- (C) w에서 P와 Q는 참이고 R은 거짓이다; 그리고 어떠한 $\sim P \ \& \ Q$ 인 가능 세계보다도 w에 더 유사한 $\sim P \ \& \ R$ 인 가능 세계가 존재한다.

16) Lewis, D. (1973a) 참조.

40 논리연구 6집 2호

예를 들어, "겨울에는 다른 계절보다 일광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른 계절처럼 덥거나 따스하지 않고 춥다"("P이기 때문에, R이기보다는 Q이다")라는 대답을 다시 고려해 보자. 이 대답이 현실 세계에서 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 할 때에 우리는 어떤 조건들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인가? 우선 앞서 언급했듯 (C) 앞부분의 조건이 현실 세계에서 성립한다고 본다. 그리고 앞서 지적했듯 겨울의 일광 시간이 짧지 않으면서 ($\sim P$ 이면서) 겨울이 추운 (Q인) 그런 가능 세계도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가능 세계는 현실 세계와 더 많은 차이를 지니는 (예를 들어 태양이 현실 세계에서보다 겨울에 지구로부터 더 멀리 거리를 두는 그런) 가능 세계이다. 따라서 그런 가능 세계보다 현실 세계에 더 유사하면서, 겨울의 일광 시간이 짧지 않고 ($\sim P$ 이고) 겨울이 덥거나 따스한 (R인) 그런 세계가 존재할 것이다. 이런 조건들이 만족된다면 우리는 위의 대답이 올바른 대답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상의 조건은 Q와 R이 서로 양립 불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주어졌다. 그런 전제가 탈락될 경우 조건을 다음과 같이 강화함으로써 (A)의 진리 조건이 포착될 수 있다.

(C') w에서 P와 Q는 참이고 R은 거짓이다: 그리고 어떠한 $\sim P \ \& \ Q \ \& \ \sim R$ 인 가능 세계보다도 w에 더 유사한 $\sim P \ \& \ R \ \& \ \sim Q$ 인 가능 세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C)의 특수한 경우는 비교항인 R이 Q의 부정 $\sim Q$ 인 경우이다. 즉 그것은 "P이기 때문에 ($\sim Q$ 이기보다는) Q이다"라는 대답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진리 조건이다.

(C'') w에서 P와 Q는 참이다: 그리고 어떠한 $\sim P \ \& \ Q$ 인 가능 세계보다도 w에 더 유사한 $\sim P \ \& \ \sim Q$ 인 가능 세계가 존재한다.

이 조건의 후반부는 "P이기 때문에 ($\sim Q$ 이기보다는) Q이다"에 대한 반사실 조건문적 분석 " $\sim P$ 였더라면 $\sim Q$ 였을 것이다"와 동등하다.¹⁷⁾ 이는 우리

직관에 일치한다. “겨울에는 다른 계절에보다 일광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른 계절에 비해 (안 추운 것이 아니라) 춥다”라는 문장은 “겨울에 다른 계절에보다 일광 시간이 짧지 않았더라면 다른 계절에 비해 춥지 않았을 것이다”가 참일 경우 (그리고 “겨울에 다른 계절보다 일광 시간이 짧다”와 “겨울에 다른 계절에 비해 춥다”가 참일 경우) 그 경우에 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건은 오직 비교항 R이 Q의 부정인 특수한 경우에만 국한되며, 일반적인 경우에 “왜” 질문에 대한 적합한 대답의 진리 조건은 (C)(혹은 C')에 의해 적절하게 주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이유, 원인, 근거: 다양한 “왜” 질문과 그 대답들

이 논문에서 필자가 제시하고자 한 것은 “왜”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들에 대한 하나의 통합적 이론이다. 필자는 한 의문문의 의미는 그것에 대한 적합한 서술문 대답들의 진리 조건들의 집합이라는 일반적 이론에 입각해서, “왜” 의문문에 대한 적합한 대답들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적합한 대답들이 가진 진리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론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필자의 이론으로 포착하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종류의 “왜” 질문들과 그 대답들의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를 원하는 논자가 있을 수 있다. 필자는 여기서 그런 다양성의 현상이 어떻게 필자의 이론 내에서 이해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그런 목적을 위해 다양한 “왜” 질문들과 그 가능한 답변들의 다른 예들을 보자. (여기서 각 “왜” 질문의 비교항은 그 질문의 안긴 문장의 부정 문장으로 설정하자.)

- (Q1) 하늘은 왜 파랗게 보이는가?
- (Q2) 일차세계대전은 왜 발발했는가?
- (Q3) 브루터스는 왜 시저를 죽였는가?

17) 그리고 이는 선우환 (2001)에서 제시된 ‘때문에’ 문장에 대한 반사실 조건문적 이론이 이 논문에서 제시되는 이론의 특수한 경우라는 것을 보여 준다.

42 논리연구 6집 2호

(Q4)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왜 180° 인가?

질문 (Q1)에 대한 가능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A1) 파랑 빛은 파장이 길고 긴 파장이 짧은 파장에 비해 대기를 잘 통과하여 우리 눈에 잘 띄기 때문에 하늘은 파랗게 보인다.

이런 “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중요한 예로 삼았던 겨울이 왜 추운가의 질문에 대한 대답처럼 어떤 사실이 성립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질문과 대답은 필자의 이론에 의해 가장 명확하게 포착되는 사례이다. 즉 (A1)은 파랑 빛의 파장이 길지 않거나 혹은 긴 파장이 짧은 파장에 비해 대기를 잘 통과하여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았)더라면 하늘이 파랗게 보이지 않(았)을 것이므로 옳은 대답이다.

질문 (Q1)는 특정한 사건을 발생하게 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좁은 의미의 인과적 질문은 아니다. 반면 질문 (Q2)는 특정한 사건의 원인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에 대한 가능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A2) 페르디난드가 암살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일차세계대전이 발발했다.

페르디난드가 암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차세계대전 (‘일차세계대전’이라는 단칭어의 지칭을 그대로 유지할 만한)은 발발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페르디난드가 암살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 일차세계대전이 발발한 이유라 할 수 있고, 페르디난드가 암살되는 사건 자체는 일차세계대전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시사되는 것은

(I) 사건 c가 사건 e의 원인이다

라는 것은

(II) 사건 c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건 e가 발생했다

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될 경우 원인 제시는 “왜” 질문에의 대답의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유 제시 문장 (II)이 참임이 인과 문장 (I)과 동치인가에 대해서는 실은 필자는 회의적이다. 군더더기 인과(redundant causation)와 관련해 최근 특히 심각하게 제기되어 온 인과의 반사실 조건문적 분석의 문제들은 바로 (II)가 (I)에 대한 필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필자는 생각한다.¹⁸⁾ 그리고 목적론적 설명이나 그밖의 비인과적 이유 제시의 가능성들은 (II)가 (I)에 대한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쨌든 인과 판단에 있어 “왜” 질문에의 대답의 특수한 경우가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고는 할 수 있다. 그리고 (Q2)는 원인에 대한 정보의 핵심적인 부분만을 요구하는 질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엄격히 원인을 묻는 질문 “일차세계대전의 원인은 무엇인가?”와는 구별된다.)

질문 (Q3)에 대해서도 브루터스가 시저를 죽이는 사건이 왜 발생했는가를 묻는 질문으로 여길 수 있고, 그것은 또한 원인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 가능한 대답은 다음과 같다.

(A3-1) 시저의 야심이 공화정에 위협하다는 생각이 브루터스에게 들었기 때문에 브루터스는 시저를 죽였다.

이 때 브루터스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 브루터스가 시저를 죽이는 사건이 발생한 이유이고 앞의 사건은 뒤의 사건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브루터스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브루터스가 시저를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경우 앞의 경우와의 차이는 단지 ‘때문에’ 절에서 언급되는 사건이 지향적 내용을 갖는 심리 상태라는 것뿐이다. 그런데 (Q3)에 대해서 (앞에서와 달리) 다음과 같은 대

18) 군더더기 인과의 문제 등에 대한 최근의 논의들을 위해, Lewis (1986b), (2000); Paul (2000) Schaffer (2000) 등을 참고하십시오.

44 논리연구 6집 2호

답도 직관적으로 허용되는 것처럼 보인다.

(A3-2) 시저의 야심이 공화정에 위협했기 때문에 브루터스는 시저를 죽였다.

대답 (A3-1)이 원인을 제시하는 문장인 것에 대조해 이 경우만이 이유를 제시하는 문장인 것으로 생각되어질지도 모르겠다. 즉 (A3-1)의 '때문에' 절의 내용은 브루터스의 행위에 대한 원인을 제시하는 것 같은 데 반해, (A3-2)의 '때문에' 절의 내용은 브루터스의 행위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 같다. 필자는 여기서 "왜 P인가?"에 대한 올바른 대답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P에 대한 이유'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이유'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A3-2)가 특별히 이유에 더 관계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어떻게 (A3-1)과 (A3-2)는 성격이 다른 문장이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필자의 이론은 (A3-2)에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대답 (A3-2)은 그 자체로는 엄밀하게 진술되지 않은, 무언가로부터 전이된 형태의 문장으로 이해해야 할 것 같다. 부르터스가 스스로에게 제기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생각해 보자.

(Q5) 나는 왜 시저를 죽여야 했는가?

이 질문에 대해 부르터스는 스스로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 있다.

(A5) 시저의 야심이 공화정에 위협했기 때문에 나는 시저를 죽여야 했다.

대답 (A3-2)의 '때문에' 절은, 대답 (A5)의 '때문에' 절이 다른 "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전이된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A3-2)는, 부르터스가 왜 그 행위를 했는지 묻는 질문이 부르터스의 입장에서 부르터스의 행위가 왜 정당화되었는지 묻는 질문으로 이해되어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즉 (A5)에 의해 제시되었어야 할 대답을 제시하는 문장이다. 즉 "시저의

야심이 공화정에 위협했기 때문이다”는 (Q3)이 아닌 (Q5)에 대한 올바른 대답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A5) 자체는 필자의 이론 내에서 아무 문제 없이 이해될 수 있다. (A5)가 참이라는 것은, 시저의 야심이 공화정에 위협하지 않았을 경우 부르터스가 시저를 죽인 일은 (다른 조건이 같다면) 정당화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서의 ‘해야 하다’나 ‘정당화되다’는 명백히 도덕적 의미의 당위나 정당화여야 할 필요는 없다.

(Q6) 너는 왜 자지 말아야 하는가?

라는 “왜” 질문에 대해 “아직 남은 일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대답은 가능한 답변이다. 이 때 ‘해야 한다’는 명백히 도덕적 함축을 갖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 (Q6)를 흔히

(Q6’) 너는 왜 잠을 자지 않는가?

라고 묻기도 한다. 그러나 (Q6’)에 대한 올바른 대답은 엄밀하게 표현하자면 “아직 남은 일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대답이 아니라 “아직 남은 일 있다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대답 등의 것이다. (실제로 아직 남은 일이 있더라도, 아직 남은 일이 있다는 것이 내 생각에 떠오르지 않았다면 나는 잠을 잤을 것이다.) 이런 두 종류의 질문이 혼동되는 것이, (A3-2)와 같은 것이 (Q3)에 대한 답변으로서 여겨지게 만든다.

결국 정당화하는 이유 제시는 필자가 이해하는 바의 “P이기 때문에 Q이다”에 의한 이유 제시의 일반적인 틀의 한 사례로서 포섭된다. 이 경우의 차이는 단지 “P이기 때문에 Q이다” 속의 Q가 “어떠어떠한 것이 정당화된다” 혹은 “어떠어떠한 것을 해야 한다”라는 형식의 문장이라는 점뿐이다.

질문 (Q4)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흔히

(A4) 임의의 삼각형 abc에 대해 각 abc는 변 bc의 연장과 ac의 연장이

46 논리연구 6집 2호

꼭지점 b로부터 이루는 각인 그 맞꼭지각과 같고, . . . (등등)이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대답한다. 그러나 (A4)는 실은 (Q4)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Q4')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 라는 것이 왜 인식적으로 정당화되는가? (혹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 라는 것을 왜 우리는 참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에 대한 답변이다. 즉 (A4)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 인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 라고 정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주 논증의 전제가 결론이 성립하는 이유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전체들을 나열하고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어떠어떠하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받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 때의 ‘때문에’는 그것이 유도하는 절이 결론이 참인 이유를 제시하기 때문에서보다는 결론이 참이라는 것을 인식적으로 정당화하는 이유를 제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¹⁹⁾

많은 이유들이 무엇인가를 정당화하는 이유이지만 그렇다고 정당화하는 이유만이 이유인 것도 아니고 정당화하지 않는 이유들이 모두 원인인 것도 아니다. 간혹 이유와 원인을 이분화하여 이유는 정당화를 하고 원인은 설명을 한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모든 이유 제시는 곧 설명이다. 즉 그것들은 모두 왜 Q인지를 설명하고 왜 Q인지 이유를 대는 것이다. 단지 Q의 내용에 따라 많은 것이 나뉘어진다. Q가 “S가 정당화된”라는 형식을 가질 때, 왜 Q인지를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가를 정당화하는 이유이다. Q가 “사건 e가 발생하다”라는 형식을 가질 때, 왜

19) Sandborg (1998)는 수학적 “왜”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 “왜” 질문의 안건 문장에 대한 증명일 수 있다는 점이 van Fraassen의 확률적 “왜” 질문 이론에 대한 반론이 된다는 것을 지적한다. (모든 증명이 증명되는 바에 대해 최고치의 확률을 부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학적 “왜” 질문을 여기서와 같이 이해할 경우 증명으로서의 그에 대한 대답은 필자의 이론에 대해 반론이 되지 못한다.

Q인지를 설명하는 이유는 흔히 어떤 사건에 대한 인과적 이유이다.

결국 우리가 살펴 본 경우들에 있어서, 우리는 “왜” 질문들과 그 답변들로서의 이유 제시 문장들에 대해서 단일한 이론을 유지하지 않아야 할 필요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선우환 (2001) 「확률적 설명 모형이 설명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가?」
『철학』 66집(봄)
- Belnap, N & Steel, T. (1976) *The Logic of Questions and Answer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Bromberger, S. (1966) “Why-Questions (First Version)” in R. Colodny (ed.) *Mind and Cosmos*, Pittsburgh: Pittsburgh University Press
- Bromberger, S. (1987) “What We Don’t Know When We Don’t Know Why” in N. Rescher (ed.) *Scientific Inquiry in Philosophical Perspectives*, The University Press of America: reprinted in Bromberger (1992b)
- Bromberger, S. (1992) “Why-Questions (Second Version)” in Bromberger (1992b)
- Bromberger, S. (1992b) *On What We Know We Don’t Know*,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ewis, D. (1973) *Counterfactual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Lewis, D. (1986a) *Philosophical Papers* vol. 2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ewis, D. (1986b) "Postscripts to "Causation"" in Lewis (1986a)
- Lewis, D. (2000) "Causation as Influence" *Journal of Philosophy*, 97
- Paul, L. A. (2000) "Aspect Causation" *Journal of Philosophy*, 97
- Sandborg, D. (1998) "Mathematical Explanation and the Theory of Why-Questions" *British Journal for the Philosophy of Science*, 49
- Schaffer, J. (2000) "Trumping Preemption" *Journal of Philosophy*, 97
- Stalnaker, R. (1968) "A Theory of Conditionals" in Sosa (1975)
- Van Fraassen, B. (1980) *The Scientific Im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